

도료, 전문화 않으면 가망 없다!

일본, VOCs 규제 앞두고 발빠르게 대응 ... 양에서 질 중시로 전환

일본의 2003년 도료 총 생산량은 전년대비 보합세인 178만4000톤을 기록한 반면, 판매량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190만5500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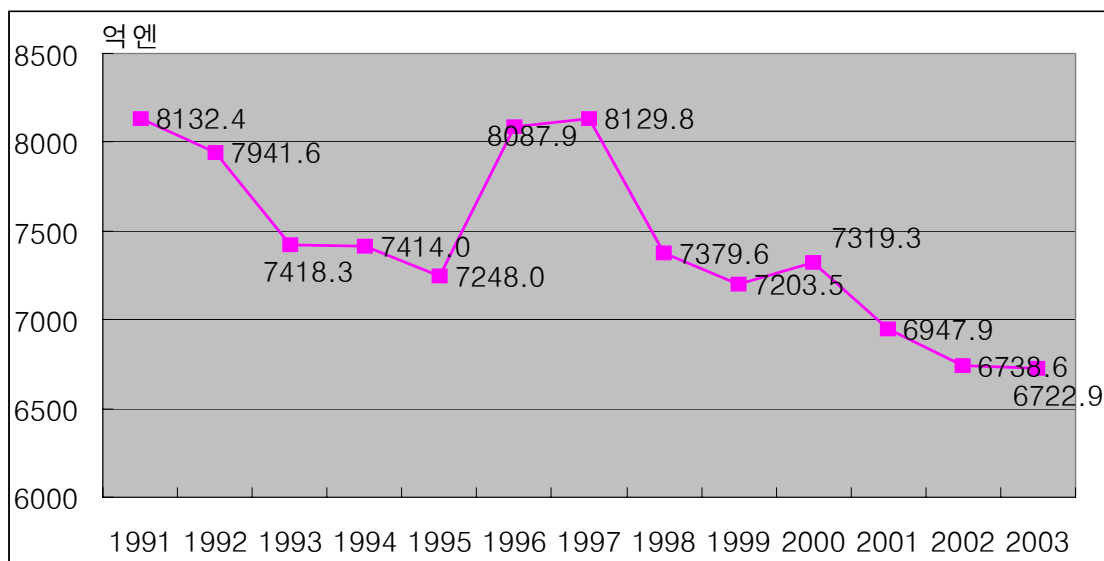
또 총 판매액은 전년대비 0.2% 줄어든 6720억엔으로 사실상 시장규모가 7000억엔을 밑돌았다.

기존의 용제계 도료제품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수계도료나 환경대응형 도료 등 전문기술 제품이 신장세를 보여 일본 도료시장이 양에서 질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Fine Speciality의 대표업종 중 하나인 도료·코팅은 2004년 법 규제 등이 확정되면 일본 최초의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가 규제될 것으로 보여 기술 및 제품의 대응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전단계라 할 수 있는 방산 Formaldehyde 규제(개정 건축기준법)에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F☆☆☆☆마크의 취득에 재빨리 나서고 있다.

일본의 도료 출하액 추이



2003년 도료 생산에서도 기존의 Alkyd 수지, Aminoalkyd 수지계의 실질적인 감소경향이 확실히 드러난 반면, 수성수지계나 Emulsion Paint의 증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무용제계 도료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분체도료는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따라서 미세하고 정밀한 분체도료 신제품, High-Solids 같은 도막 개발 등 기술면이 발달하고 있어 분체도료가 더욱 전문화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4/06/10>